하나님의 말씀

선한 목자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새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계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을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계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6845 선한 목자.....3
7455 선한 목자 예수.....4
4295 선한 목자. "나에게 속한 사람은 나의 음성을 깨닫는다."....5
7129 예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일.....6
7356 계속하여 예수를 부르는 일이 그의 임재를 보장한다.....8
7191 예수 이름의 능력.....9
6169 예수 이름이 마귀를 물리친다.....9
7195 예수께로 도피.....10
7398 빛의 나라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11
7404 빛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12
8091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심.....14
7085 내 구세주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15

선한 목자.

B.D. No. **6845**
1957 년 6 월 4 일

선한 목자의 비유는 나와 너희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 비유는 내가 내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것을 보여 주고 내 부름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이 대적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내 무리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너희 모두는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너희를 인도하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목자인 안내자가 필요하다. 왜냐면 너희는 이 땅의 삶에서 끊임없이 보호가 필요한 자립적이 못한 자녀와 같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린 양 무리와 같이 사방에 흩어져 있고 자주 심연으로 인도하는 길에 들어선다. 너희는 때때로 너희가 깊은 추락의 위협이 있는 높은 곳으로 잘못 올라가고 또한 자주 잘 모르는 영역으로 들어가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하고 또한 때때로 내 무리로부터 멀어진다. 내가 경계하는 눈으로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을 받는다. 그러나 나는 내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이고 나는 내 작은 무리에 속한 사람을 불법적으로 납치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고 늑대가 내 어린 양을 훔치는 일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는 내 양들 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나는 양이 자신의 마구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른다.

선한 목자가 단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너희를 향한 내 관계는 진실로 선한 목자와 같다. 너희가 현재 상태에서 아직 무지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측량할 수 없고 너희는 단지 내 부름을 따르고 너희 자신을 충성스럽게 나에게 향하게 할 수 있다. 너희는 내 부름을 통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내 사랑의 모든 깊이를 파악할 수 없다. 이는 양이 단지 모든 위험에서 목자와 함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양이 양떼를 향한 목자의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나는 선한 목자이고 선한 목자로 머물고 내 양을 올바른 초장에서 방목하고 양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양들이 내 사랑을 느끼고 점점 더 긴밀하게 나와 연합하여 원수가 더 이상 양들에게 다가올 수 없고 해를 끼칠 수 없게 하는 일 외에는 더 이상을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양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나는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양들을 밧줄로 묶지 않고 양들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왜냐면 나는 강제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강제로 양떼들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고 양들이 양들의 목자의 사랑을 느끼고 양들이 목자의 사랑을 갈망하고 따라서 내 부름이 울릴 때 모든 자유로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

내 부름은 항상 또 다시 울리게 될 것이고 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랑으로 말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훈계할 것이고 그들이 위험에 처하면, 내가 항상 그들을 도울 것이다. 나는 그들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고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줄 것이다. 나는 진실로 선한 목자처럼 내 양무리를 돌보아 내 양이 죽지 않게 할 것이고 내 음성을 끊임없이 들려줄 것이다 . 이로써 그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한때 나에 의해 생성되었고 거짓 음성을 들은 그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 영원히 나에게 머물고 영원한 내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아멘

선한 목자 예수**.**

B.D. No. **7455**
1959 년 11 월 15 일

나는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을 너희 에게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단지 소수만이 너희 말을 듣고 심장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들의 목자인 나를 따르는 무리는 단지 작은 무리이다. 나는 이런 작은 무리를 함께 모을 것이다. 나는 내 울타리가 침범받는 일을 내 양들을 도둑질해가는 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나는 내 양들을 위해 생명을 드리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내 부름이 너희에게 들리면, 이를 듣는 내 무리에 속해 있다. 내 부름은 위로부터 나 자신이 언제든지 너희에게 말하는 내 말이다. 내 부름은 선한 목자의 부름이고 자신의 양 무리에서 작은 양이 길을 잃기를 원치 않고 너희를 유지하기 위해 너희에게 경고하고 권면해서 너희를 나에게서 빼앗아 가려는 함정의 그물에 너희가 빠지지 않게 너희에게 사랑의 말을 하는 선한 목자의 부르는 음성이다.

나는 실제 너희를 자유의지 가운데 놔둔다. 만약에 너희가 넓은 평야 가운데 거하면, 너희는 원하는 대로 너희의 길을 택할 수 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뒤따르고 길을 잃은 올바른 길을 벗어난, 깊은 곳으로 빠졌거나 또는 높은 곳에 있는 양들을 찾는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자신을 다시 찾게 양들이 자기에게 보호를 구하면서 다가와 자기와 함께 오랜 동안 초원을 거닌 후에 날이 지난 후 평안과 고요함이 있는 고향으로 향하게 인도하고 부른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밤이 다가 오면, 그가 자신의 양들을 그들의 운명에 맡겨두지 않는 것이다. 왜냐면 어떠한 양들은 길을 잃고 올바른 길을 벗어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그가 잡혀

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잘 모르는 영역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갓길로 가다가 자신의 무리와 자신의 목자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양을 뒤따르고 그가 양을 찾을 때까지 계속 부른다. 목자는 양을 다시 무리에게 옮기고 고향의 양 우리로 인도하기 위해 모든 기쁨으로 자신을 굽혀 양을 자신의 품에 안을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인 나로부터 떨어져서 자신의 길을 가는 세상 가운데 오류에 빠져 세상에서 위로 성장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을 이처럼 대할 것이다.

이들 모두는 내가 심장으로 관심을 가지는 길을 잃은 양들이다. 나는 이 들을 다시 나를 위해 얻기를 아주 원하고 나에게 속한 자로 여길 수 있게 되길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또 다시 내 말씀을 통해 그들이 내 말씀을 따르고 사랑 안에서 자신이 멀리 떠났던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부르고 인도한다. 그러므로 높은 곳으로부터 항상 또 다시 내 말을 들려준다. 내 말을 받은 사람은 세상 가운데 내 말을 전달해야 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긴급하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그들을 부르는 내 말이 필요하고 내 사랑이 충만한 부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진실로 누가 내 말을 필요로 하는지를 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너희를 만나게 해서 너희가 그들에게 포도원 일을 행할 수 있게 하고 너희가 선한 목자로써 나에게 사랑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게 하고 무리를 떠난 양들이 내가 없이는 축복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나에게 돌아와야 할 양들을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만들 수 있게 한다.

내 말에 감동을 받게 될 사람은 많지 않게 될 것이다. (1959 년 11 월 15 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희의 말을 듣는 일을 거부할 것이다. 왜냐면 내 무리를 불의하게 얻은 원수에게 자유의지로 복종하는 내 무리는 흩어져서 원수에 의해 인솔받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선한 목자의 인도하려는 부름은 항상 또 다시 들릴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오면, 나는 그들을 데리고 고향의 양 우리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너희도 인도하고 부르라. 자신의 양들을 찾고 그들을 자신의 신실한 보호 아래 두기 원하는 선한 목자를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알려줘라.

사람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줘라. 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위험 가운데 자기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하나님은 선한 목자처럼 모든 양들을 자신의 품에 안기 원하고 그들의 보호와 보호막으로 자신을 제공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과 함께 행복하게 하고 안전하게 한다.

아멘

선한 목자**. "**나에게 속한 사람은 나의 음성을 깨닫는다**."**

B.D. No. **4295**
1948 년 5 월 10 일

나는 나에게 속한 사람을 알고, 나에게 속한 사람은 나를 안다. 내가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은 나를 따른다. 왜냐면 그들이 자신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순종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부름은 곧 나에게 속한 너희에게 전달될 것이다. 내가 이를 미리 너희에게 말한다. 왜냐면 너희가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너

희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필요하고,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곧 나의 음성을, 자신의 양들을 부르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나의 양떼를 위한 충성스러운 보호자가 필요하고, 돌이 많은 길과 절벽을 지나 높은 곳으로 동행하고, 항상 나에게 속한 자들 곁에 서고, 가까운 종말을 알려주는 인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인도자와 보호자는 나 자신으로부터 진리를 받아, 너희에게 전해줄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의 무리에서 나와, 위로부터 온 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다. 그들은 나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그러므로 그들 자신이 나에게 속한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고, 그들의 귀에 부름이 들리면, 그들은 나와 나의 나라를 위한 일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그들은 나와의 연결을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 너희 쪽에서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나를 섬기는 혼이 절대로 퇴보할 수 없고, 절대로 힘이 없이 머물지 않게 되고,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 나 자신으로부터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이 땅의 삶의 목적과 목표대로 그들의 이 땅의 사명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단지 나를 위해 일하고, 기쁨으로 나의 말씀을 전하고, 대변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나 자신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하고,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말씀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큰 힘을 받을 것이고, 모든 연약하다는 느낌이 그에게서 사라질 것이고, 모든 영적인 은사를 전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할 것이고, 그가 사람들 가운데 하는 일은 성공하고 축복을 줄 것이다. 이런 너희의 역사가 아주 임박해 있다.

나는 너희의 의지와 너희 믿음의 연약함을 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짧은 시간 내에 너희에게 일어날 변화를 알고, 다가오는 때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 안다. 마찬가지로 나는 또한 너희의 믿으려는 의지와 너희 믿음의 강한 정도를 안다. 나는 이에 합당하게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축복한 나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진실로 나의 자녀가 되라. 나의 자녀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아버지에게 자신을 드리고, 너희가 위험에 처할 때 아버지가 확실하게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면 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나의 자녀이고, 내가 그의 삶을 돌보기 때문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울리는 나의 음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을지라도 나의 자녀가 아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깨닫고, 목자가 그들을 부를 때, 목자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양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는 선한 목자이다.

아멘

예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일.

B.D. No. **7129**
1958 년 5 월 24 일

너희는 나와 함께 내 이름으로 매일을 시작하고 모든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므로 매일의 과제를 성취시켜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 일이나 또는 영적인 일이든지 간에 너희가 축복된 일을 완성한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혼자 행하면, 즉 내가 없이 나에게 내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서 일하면, 너희는 많은 헛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되거나 또는 너희가 이 일을 항상 성공시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긴밀하게 나를 생각하는 일이 이미 너희에게 내 도움을 보장하고 너희가 의식적으로 내 축복과 지원을 구하

면, 모든 일이 저절로 너희에게 좋게 되도록 일어날 것이고 너희는 모든 평안 속에 너희의 매일의 일할 수 있게 된다.

너희는 너희가 항상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공격받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너희가 하는 일에 내 축복을 요청함으로써 너희 주변에 보호벽을 세우지 않으면, 어두움의 세력이 항상 너희에게 들어올 수 있다. 어두움의 세력이 너희에게 한번 들어오게 되면, 초기에 들어오는 일을 막는 일보다 어두움의 세력을 다시 물리치는 일이 더욱 어렵다. 왜냐면 어두움의 세력이 너희 의지를 약하게 하고 그러면 너희 의지가 단지 모든 힘을 드려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을 회복하게 된다.

너희 혼을 위한 싸움은 계속하여 이루어진다. 이런 어두움의 세력들이 자주 너희가 승리하는 일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자주 너희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 왜냐면 너희가 제한이 없는 능력을 요청할 수 있고 내 인도와 내 보호와 내 축복을 구하는 긴밀한 기도를 통해 항상 요청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로 내가 없이 너희의 매일의 일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너희는 심장으로 내 이름을 불러야 하고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해야 하고 너희 자신을 제한이 없이 나에게 드려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 혼의 원수에 대항해 너희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면 셀 수 없이 많은 빛의 존재들이 너희를 감싸고 어두움의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쾌활하고 염려 없이 힘과 내적인 평안을 느끼며 너희의 매일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도 너희를 흔들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내가 항상 임재해 있고 너희를 위해 모든 일을 조절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와 내적인 연결이 세상 일에 또는 영적인 일에 관련 된 너희의 모든 계획이 성공한다는 가장 좋은 보장이다. 그러면 나 자신이 항상 너희에게 역사하여 너희 생각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올바르고 너희에게 도움이 되게 인도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나와 분리되게 하고 연결을 느슨하게 하면, 내 대적자가 너희에게 준 너희에게서 내적인 평화를 빼앗는 생각이 너희를 불안하게 하고 항상 더욱 악한 세력이 들어오게 하는 다른 생각이 너희에 대한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어두움의 세력은 이제 내적인 갈등과 부조화를 일으키는 일을 계속해서 너희가 날마다 하는 일이 축복받지 못하게 하고 너희 혼이 어두움의 세력의 포로가 되는 위험에 빠지게 한다.

너희가 나를 도피처로 삼으면, 너희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다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왜냐면 내가 언제든지 영적인 위험에 있는 너희를 도울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없이는 어두움의 세력과 그의 영향력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없고 너희는 내가 없이는 너무 연약하고 그러므로 어두움의 세력에 당하게 된다. 너희가 항상 또 다시 나에게 그리고 내 보호 아래 너희 자신을 맡기고 항상 또 다시 내 축복을 구하고 너희가 너희의 육체적인 행복과 그리고 영적인 행복을 나에게 구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일을 잊지 않으면서 이로써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고백하면, 너희는 이런 모든 공격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가 내 대적자가 다시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을 세운 것이다. 왜냐면 대적자는 나와 내 이름 앞에 도망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단지 믿음으로 내 이름을 부르면, 내 대적자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아멘

내가 나에게 속하기 원하는 사람을 떠나지 않음이 너희에게 확실해야 한다. 너희에게 아직 많은 어려움이 올 것이다. 나는 이를 알고 있고 항상 너희 곁에서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모든 시도를 해야 한다. 내 대적자는 너희를 시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그는 아직 짧은 기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추종자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는 그의 권세와 그의 의지로 벗어난, 나에게 속한 사람들도 바라보고 더 강한 능력으로 그들을 유혹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두려워할 필요없다. 왜냐면 내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나에게서 빼앗아 가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항상 단지 나 자신을 부르면, 내가 너희를 돕는다는 것을 깊이 믿는 가운데 내 이름을 부르면, 너희는 그에게 저항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 자신에게 의뢰해야만 한다. 너희는 그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에게 속한 사람들에 대한 그의 권세는 더 이상 크지 않다. 왜냐면 나를 향한 사랑 앞에 너희를 대항해 어떤 시도를 하던지 간에 모든 일이 반격당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주 너희를 더욱 괴롭히는 수단을 사용한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항상 단지 십자가에서 너희 모두를 위해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죄짐을 짊어진 나를 생각하면, 너희는 이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나는 너희를 구속했다. 나는 너희를 그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내 십자가의 희생을 영접하려는 너희가 이 희생이 너희를 위해 드려진 것으로 여기고 너희가 자유의지로 너희 자신을 나에게 드리면, 내 대적자에게 더 이상 너희에 대한 아무런 권세가 없음을 믿으려는 너희의 의지 만이 필요하다. 매순간 나를 생각하라.

이로써 너희는 나 자신이 항상 임재하게 한다. 내가 너희에게 임재해 있으면,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너희는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면 내가 너희 편에 서면, 내가 너희 편에 머물면, 그렇지 않았으면 강력하였을 대적자도 무기력해지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을 유일하게 너희의 생각에서 나를 떠나지 않게 만들려는 모든 위험과 공격 가운데 나를 부르고 내가 언제든지 너희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돕는다는 신뢰 가운데 내 이름을 부르는 너희 의지가 정한다. 항상 계속하여 사랑을 행해 너희 믿음을 단지 생명력이 있게 만들라. 너희는 더 이상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영적 위험과 세상 위험을 물리치기 때문이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두려움과 절망을 알지 못한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가장 큰 원수에 대한 승리자인 나 자신과 연합되어 역사하는 것이고 대적자는 이 역사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 전적으로 모두 헌신해야 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속하고 속해 머물고 영원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사랑이 너희에게 처음부터 향해 있고 내 사랑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버지는 원수를 통해 자녀들 공격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자녀를 보호할 것이다. 아버지는 자녀의 곁에서 함께 갈 것이고 보호하는 손을 펼칠 것이다. 자녀가 올바르게 목표에 도달하게 자녀의 모든 길은 평탄할 것이다.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

B.D. No. **7191**
1958 년 10 월 19 일

너희는 내 이름을 깊은 믿음을 가지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내 이름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다. 너희는 내 가까이함을 의식할 것이고 너희의 위험 가운데 도움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세상이 너희와 나 사이에 들어서느냐! 얼마나 자주 세상의 영향이 아직 아주 강하여 너희를 벗어나게 하고 자유롭게 하여 모든 긴밀함으로 나에게 향하게 하고 이 땅에서 영의 나라를 향한 건너뜀을 시도하는 일이 불가능하느냐!

나는 아직 너희에게 실제로 가까이 있지 않다. 그러나 너희가 자신을 전적으로 모두 나에게 헌신하면, 너희가 자신을 내 심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면, 그리고 내가 전적으로 임재하는 것처럼 내 이름을 부르면, 너희는 분명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너희는 너희 심장 안에서 이런 내 임재를 느낄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헛되게 부탁하지 않을 것이고 이 부탁은 이미 너희에게 성취될 것이다. 그러면 내 이름의 능력이 이미 역사한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전적으로 믿는 가운데 나를 부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이다.

너희는 무엇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인지 알 것이다. 세상이 아직 너희를 아주 공격할지라도 너희는 언제든지 너희 자신을 나와 긴밀하게 연결시킬 능력이 있고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내 능력이 너희에게 흘러갈 수 있다. 너희가 단지 항상 너희의 관점을 나에게 향하게 하면, 너희가 전적으로 단순하게 나에게 속하기 원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런 긴밀한 소원이 내가 너희를 이끌고 절대로 내 손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싸우는 일은 필요하다.

왜냐면 너희가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가 추가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피곤해지거나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또 다시 어린 아이처럼 아버지를 불러야 한다. 너희의 부름이 긴밀 할수록 너희는 더욱 빠르게 응답받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전적으로 소유하기 원한다. 그러나 너희는 자유의지로 나에게 다가와야만 한다. 왜냐면 자녀가 자신을 나에게 드리고 나를 자신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로서 믿는 가운데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비로소 자녀의 사랑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이름이 마귀를 물리친다.

B.D. No. **6169**
1955 년 1 월 19 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마귀에게 물러가라고 명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너희는 확실한 수단인 너희의 주님인 구세주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너

희가 전적인 믿음으로 이 이름을 말하면, 이 이름은 모든 악한 세력들과 내 대적자의 사명을 받아 역사하면서 너희를 압제하는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내 이름의 힘으로 말하면, 이런 세력들은 너희를 떠나야만 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멸망 받지 않기 위해 내 이름을 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항상 단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자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자신을 드리는 일이다. 너희는 나를 부르거나 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주기를 원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어떤 악한 존재도 너희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 의지가 너희를 해치기 원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선행 조건은 너희 자신이 나에게 속하기를 원하는 일이고 너희에게 나 자신과 내 기쁨을 얻으려는 진지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일이다. 즉 너희가 의식적으로 나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면 내 대적자가 너희를 더 난폭하게 공격할 것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너희가 나를 떠나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는 너희에게 자신의 나라를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로 제시할 것이다. 그는 가면을 쓰고 너희에게 다가와 너희의 감각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그가 요구하는 것을 가능한한 갈망할 만하게 만들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로써 너희가 그가 요구하는 일이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는 이미 너희를 유혹할 올바른 방법을 찾는다. 그러나 너희가 나와 연결을 구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그와 그의 음모를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

너희는 항상 나를 불러야 하고 너희 자신이 의심에 빠지거나 또는 너희가 내 대적자의 위협을 느낄 때 너희는 항상 전적으로 긴밀하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너희는 단지 나를 너희 심장에서 쫓아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내 대적자에게 유리한 싸움이 되고 너희가 대적자의 욕망에 굴복하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이 종종 그에게 저항하기에 너무 연약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적자를 알고 대적자의 주인인 분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긴밀한 부르짖음이 너희를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고 예수 이름을 깊은 믿음으로 부를 때 예수 이름이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 왜냐면 너희가 예수 안의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인 나 자신을 부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너희 혼이 스스로 나를 갈망하면 너희를 진실로 너희 혼을 얻기 위해 대항하여 싸우는 대적자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아멘

예수께로 도피.

B.D. No. **7195**
1958 년 10 월 27 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원수에 대항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절대로 멸망 받지 않을 것이다. 그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혼을 대적자에게서 빼앗기 위해 혼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면서 그가 항상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청하게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싸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기 위해 그는 인간 예수가 완성한 긍휼의 역사를 알아야만 한다.

그는 자신의 원죄와 죄로 인한 결과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요 구세주로 인정할 필요성을 알아야만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지식을 안다. 그러나 모두가 이미 이에 대한 입

장을 정한 것은 아니다. 사람이 의식적으로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기 위해 이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단지 형식적인 지식으로 머무는 동안에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지 않으면, 그에게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대적자의 권세 아래 머문다. 그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는 무의미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하나의 이름이고 자신의 혼에게 살아 있는 구세주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지 원수의 권세로부터 자신의 구원을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그리고 이런 기도가 원수를 떠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를 증거해주기 때문에 확실하게 응답될 거라는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 위해 단지 사람의 의지 만으로는 너무 연약하다.

그러나 이 도움은 요청을 받아야만 한다. 이 도움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임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로 의식적으로 인정하는 일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세상에 선포되어 야만 한다. 그의 이 땅에 과정, 그의 사랑의 삶, 그의 고통스러운 고난, 십자가에서 그의 고통이 충만한 고난과 죽음이 사람의 심장 안에 생명력이 있게 기록돼야만 한다. 왜냐면 사람이 죄에 대한 속죄를 행하기 위해 예수가 끔찍한 고난을 당한 자신의 큰 죄를 측량할 수 있고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기 위해 예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생명력 있게 만들지 않으면, 그에 대한 죽은 지식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큰 죄를 깨달아야만 하고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갈망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비로소 자유의지로 자신을 예수에게 드리는 것이고 예수에게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는 예수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감당해주고 자신을 타락하게 만든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구할 것이다. 그의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타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에는 너무 연약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불행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이다.

아멘

빛의 나라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B.D. No. **7398**
1959 년 8 월 26 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모든 사람은 그와 생명력이 있는 관계를 맺은 사람은 올바른, 행동하는 크리스천이고 형식적인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은 빛의 문을 향해 간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아는 일은 행복하게 해주는 생각이다. 왜냐면 그러면 그에게 빛의 나라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죽음 후에 그를 기다리는 저세상에 거할 때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에게 속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연결은 긴밀한 연결을 의미한다.

이런 연결은 항상 사람이 항상 사랑 안에 사는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가는 곳에서 이뤄질 것이다. 이런 사람은 사랑을 통해 밝은 영으로 있을 것이다. 그는 구속사역의 의미를 알 것이다. 그는 예수의 이 땅의 사명을 올바르게 깨달을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의 겉형체로써 완성한 긍휼의 역사에 동참하기 원할 것이다.

왜냐면 이런 큰 구속역사와 그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모든 심장으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고 모든 진실함으로 영원히 그에게 속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 영을 통한 깨우침이 요구 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 비로소 영이 깨우침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랑의 삶이 요구 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 이 땅의 목적과 목표에 합당하게 살려는 의지가 요구 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선한 의지가 요구 된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긴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모든 심장으로 그에게 속한 사람은 그가 죽을 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그를 고백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열어준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생명력있게 연결이 되기 위해 깊은 믿음을 전제로 한다. 이런 믿음은 바로 다시 사랑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의 삶을 사는 일이다. 이런 사랑을 통해 믿음이 생명으로 깨어나고 사람은 이전에는 그가 아직 질문하고 의심하던 것에 대해 이제 확신을 갖는다.

이런 믿음을 자신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진실로 행복해하며 찬양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은 마치 바위와 같다. 이런 믿음 위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다. 다시 말해 이런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통해 생명력이 있게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가 세운 교회에 속한다.

그러면 이런 깊은 믿음에 도달한 사람은 이미 축복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왜냐면 이 땅에서 어떤 일도 그를 놀라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는 자신이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분의 팔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그의 팔 안에서 안전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죽음이 더 이상 그를 놀라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단지 그의 외적인 겉형체를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력이 있게 믿는 모든 사람의 운명인 빛과 축복이 있는 다른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빛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B.D. No. **7404**
1959 년 9 월 5 일

오제 빛의 나라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신을 인도해 목포에 도달하게 한 나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을 받았다. 왜냐면 죄와 죽음은 어두움을 의미하고 구속을 받지 못한 혼은 절대로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혼은 이 전에 빛의 나라의 문을 유일하게 열 수 있는

분인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한다. 그의 손에 있는 혼들도 마찬가지로 빛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면 그가 혼들을 그들의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는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로써 죄와 죽음 가운데 거하는 모든 혼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 사람들을 위해 죄짐의 대가를 지불했고 너희가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자유롭게 되고 너희가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1959 년 9 월 5 일) 단지 빛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고 빛이 있는 곳은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없는 곳이다. 그러나 그가 죄가 해결되길 구하고 예수에게 용서해주기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죄를 해결한다. 그러므로 저세상에서도 혼들의 구속이 있고 어두움으로부터 빛으로 향하는 변화가 있다. 왜냐면 저세상에서 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혼이 예수그리스도를 부르면, 그는 나를 부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혼의 죄짐을 용서할 수 있다. 혼의 죄짐이 혼을 나와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떨어져 있게 했다.

십자가의 제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드려졌다. 구속받지 못한 한 혼이라도 있으면, 죄짐을 벗기 위해 단지 십자가를 향하는 길을 가기만 하면 된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일은 나와 교제한다는 의미이고 그러므로 제한이 없는 축복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절대적으로 진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혼이 아직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혼은 아직 최고의 축복을 기뻐할 수 없다. 왜냐면 진리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빛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빛은 깨달음이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이다. 혼이 저세상에서 아직 이런 깨달음이 없는 동안에는 혼은 아직 빛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그가 빛의 비추임을 받으면, 그 안에 갑작스럽게 깊은 깨달음을 받기 때문이다.

혼이 진리를 영접하기를 거부하면, 그의 축복된 정도는 부족할 것이다. 혼은 그러면 예수그리스도를 아직 올바르게 깨달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긴밀하게 부르면, 받게 될 전적인 구속을 아직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셀 수 없이 많은 혼들이 축복되지 못하다고 할 수 없지만 축복된 상태는 아닌 아직 여명의 상태에서 거한다.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가 그들에게 빛의 나라의 문이 열릴 정도가 아직 아니다. 이런 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른 이해할 수 있기 위해 아직 많은 가르침과 많은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혼들이 잘못 된 생각과 여러 종류의 잘못 된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혼들은 전적인 빛의 비추임을 받는 일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혼의 의지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태를 정한다. 이 땅에서 계속하여 거부한 사람은 저세상에서도 자신의 거부하려는 의지를 항상 또 다시 나타낼 것이다. 그들은 모든 긴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되었을 것이다. 왜냐면 청함이 영으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그에게 도움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모든 어두움을 사라질 것이고 빛이 이제 아주 밝게 비추어 혼을 뜨겁게 해주고 모든 영적인 어두움이 사라질 것이고 혼은 깨달음에 도달할 것이고 가장 깊은 연관관계에 대한 지식을 이제 영원히 더 이상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 영을 밝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전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 사람들에게 빛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를 섬기기 원하는 너희는 빛의 전달자로써 나에게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이웃에게 밝혀 주기 위해 이 길을 먼저 가야 한다. 나는 무엇에 관한 설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지 안다.

나는 어디에 그들의 생각의 오류가 있는지 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빛이 필요함을 안다. 모든 잘못 된 생각은 단지 혼돈하게 만드는 영적인 어두움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또 다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어 줄 것이다. 이로써 너희가 이 땅의 삶 동안 가야 할 올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너희가 빛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면, 이 땅에서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택해야만 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깨닫고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너희는 진리에 합당하게 예수 안에서 내가 인간이 된 것에 관해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예수 안의 나 자신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내가 인간이 된 것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가장 크고 가장 온전하고 무한한 영인 나 자신이 인간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겉형체로써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모신, 그의 겉형체는 실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 신적인 사랑의 영으로 전적으로 모두 충만했던 예수 안이 아니고서는 내가 나 자신을 나타낼 수 없었음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의 모든 성품이 하나님이었고 내 피조물인 너희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으로 남았다. 너희는 영원한 신성을 제한을 가질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상상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나는 무한의 세계를 충만하게 채운다. 왜냐면 제한이 없이 역사하는 내 능력이 이런 무한의 세계로 발산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이런 능력을 발산시키는 원래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나를 절대로 제한을 가진 존재로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한 형체를 전적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그 안에 비추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형체가 단지 내 원래의 성분이 되게 할 수 있고 너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형체 안에서 이 형체가 나 자신과 똑같이 되게 만들 수 있다.

이 형체가 인간 예수이다. 왜냐면 내 피조물들이 공간적으로 제한을 가진 것을 보기 원했기 때문이다. 구속사역이 너희가 볼 수 있게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된 것을 죄악 된 인류를 위해 나 자신이 모든 충만함으로 그 안에서 거한 한 사람에 의해 완성이 된 사랑과 긍휼의 역사를 믿으면,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볼 수 있는 과정을 사람들이 요구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를 예수 안에서 상상해보는 것 외에는 나를 상상할 수 없다. 예수 안에서 무한한 가장 큰 영이 인간이 되었다.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다. 왜냐면 그의 인간적인 겉형체가 영화가 되었고 내 사랑의 영으로 전적으로 비추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는 그의 사랑의 삶을 통해 자신을 영화 시켰을 때까지만 단지 사람이었다. 그러나 겉형체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마지막으로 가장 아픈 십자가에 죽음을 견뎌야만 했다.

왜냐면 인간 예수는 자신의 이웃들을 위해 큰 죄짐을 구속하기 원했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구속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영원한 사랑인 나 자신이 예수 안에서 완성을 했다. 그러므로 예수 안의 나 자신은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한때 나로부터 존재로 발산되어 나온 너희 모두의 원래의 성분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로부터 떠나갔을 때 예수는 나에게 남았다. 예수는 나로부터 발산 된 즉 내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 너희에게 나에게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그의 큰 사랑이 인간으로써 나와 연결을 유지했다. 그는 항상 단지 내 사랑을 갈망했다. 나는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전적으로 모든 채워줄 수 있었다. 나는 그를 전적으로 비추어주어서 그를 전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의 형체가 인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이 되었다. 나와 그 사이에 더 이상 분리가 없었다. 그는 전적으로 나와 융합이 되었다. 그는 나와 하나가 되었다. 내 피조물들은 이제 만약에 그들이 구속을 받고 영원히 축복된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을 대면해 볼 수 있다.

아멘

내 구세주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

B.D. No. **7085**
1958 년 4 월 6 일

영의 세계에서 내 구속사역으로 인해 환호와 기쁨이 있었다. 왜냐면 모든 빛의 존재들에게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항상 또 다시 계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자로써 빛의 나라의 문을 그들에게 열어 준 나를 찬양하고 칭송했다. 그들은 내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3 일만의 부활의 영적인 의미를 알았다. 그들은 이런 가장 큰 인류를 위한 긍휼의 역사를 통해 부활이 보장됨을 알았다.

그들은 그들이 영원한 죽음에 빠지지 않게 된 것을 알았고 끝 없이 긴 기간 동안의 가장 극심한 포로상태가 지난 후에 언젠가 모든 사람에게 구속의 순간이 다가옴을 알았다. 그러므로 그들의 감사와 그들의 환호와 그들의 나를 향한 사랑은 측량할 수 없고 증가하고 동시에 그들은 항상 또 다시 현재로 체험할 수 있는 구속사역에 참여한다. 왜냐면 빛의 나라에서는 시간의 제한이 없고 그들은 모든 과거에 일어난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로 체험하기 때문이다.

이 땅의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는 과정에 동참하려고 시도하면, 그들은 이를 통해 가장 큰 축복의 얻을 것이고 그들의 심장은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 것에 대한 환호와 깊은 감사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 과정은 일회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이런 측량할 수 없는 고난을 짊어진 사람이 없다. 비록 이웃의 잔인함으로 그들에게 견딜 수 없게 보이는 환경의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자주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도 전적으로 죄가 없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끝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이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역사 가운데 영적인 과정이 함께 역사했다. 이는 그의 육체의 고통을 더 많이 증가시켰다. 왜냐면 혼은 가장 높은 깨달음 가운데 있었고 이로써 모든 것

을 모든 사람이 당했을 영적인 위험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고통을 가하고 악한 역사를 그에게 행한 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순수한 육체가 지옥의 보냄 받은 자로 느꼈던, 그들의 불쌍한 욕망과 악한 충동 만족시키는 일을 당하게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 이를 견디었다.

그는 모든 영광 가운데 3 일 후에 그를 가두어 둘 수 없는 무덤에서 다시 부활했다. 이로써 그의 부활은 그의 구속사역의 최고봉이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구속하게 만든 모든 사람이 자신들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함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 전에도 사람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의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다. 왜냐면 혼은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혼은 영원히 계속 산다. 그러나 혼의 상태가 생명의 상태인지 죽음의 상태인지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 왜냐면 단지 예수 그리스도 만이 혼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만이 축복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은 저세상에서 죽음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기를 구할 때까지 그는 오랫동안 죽음의 상태에서 머물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육체의 죽음의 순간이 부활의 순간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면 한 분이 죽음을 극복했고 이 한 분이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모든 깊이를 이해하고 이 역사에 참여하기 원하면,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환호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그의 가시를 잃어버린 것이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의 찬양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는 진실로 부활했다. 내 구세주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

아멘